

‘還是’의 용법 간의 의미적 상관성 연구*

임소정**

— 목 차 —

1. 서론
2. ‘還是’에 대한 기존의 논의
 - 1) 중국어 교재 해설 현황
 - 2) 선행 연구의 쟁점
3. ‘還是’ 용법 간의 의미적 상관성
 - 1) ‘還是’의 부정 기능
 - 2) ‘還是’의 의미별 부정 양상
4. 결론

국문초록

현대중국어 ‘還是’는 상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기능이 다양하다보니 해당 어휘의 용법에 대한 중국어 학습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한 단어가 여러 의미항으로 분화되는 경우 학습자들이 세부적인 의미항을 일일이 기억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미항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화용적 각도와 문법화의 각도에서 ‘還是’의 용법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고찰하고, 또 국어나 영어의 유사한 어휘를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고찰 결과, 중국어 ‘還是’의 부사 용법과 접속사 용법의 기저에는 ‘부정’ 혹은 ‘역접’이라는 의미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흔히 알고 있는 ‘還是’의 연속 의미, 선택 의미 등도 모두 기본적으로 부정이나 역접 관계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키워드: 다의성, 화용, 요청문, 문법화, 의미기능, 중국어 교육

1.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還是’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상용어로서 초중급 수준의 교재에도 늘 수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단어가 그렇듯이 ‘還是’ 역시도 다의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자주 사용되고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의미항이 있는가 하면, 사용 빈도도 낮고 그만큼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의미항도 존재한다. ‘還是’에 대한 『現代漢語詞典』의 해설을 보자.

1. 【副詞】表示現象繼續存在或動作繼續進行；仍舊：十年沒見了，她還是那麼年輕。
([부사] 현상이 계속 존재하거나 동작이 계속 진행됨; 여전히: 십 년을 못 봤는데 그녀는 여전히 젊네.)
2. 【副詞】表示不合理；不尋常；沒想到如此，而居然如此（多含贊嘆或責備、譏諷的語氣）：沒想到這事兒還是真難辦。
([부사] 불합리함; 예사롭지 않음; 이럴 줄 몰랐음(주로 감탄 또는 책망, 비난의 어기를 지님);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3. 【副詞】表示傾向性選擇，含有“這麼辦比較好”的意思：天氣涼了，還是多穿點兒吧。
([부사] 선호도 선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옴’을 뜻함: 날씨가 추워졌다, 따뜻하게 입는 게 좋을 거야.)
4. 【連詞】表示選擇，放在每一個選擇項的前面，不過第一項之前也可以不用：你還是去，還是不去？
([접속사] 선택을 나타냄, 각 선택지 앞에 쓰이지만, 첫 번째 선택지 앞에서는 생략 가능함: 너는 가니 안 가니?)
5. 【連詞】連接無須選擇的若干事項（跟“不管、無論”等搭配使用：不管認識的還是不認識的，都得按章辦事。
([접속사] 선택할 필요가 없는 몇 개 항목을 연결함: (‘不管’, ‘無論’ 등과 함께 쓰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규정을 따라야

한다.)

‘還是’의 여러 용법 가운데 교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학생들도 많이 접한 용법은 바로 ‘아직도, 여전히’와 같은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의 용법과 ‘또는, 아니면’과 같은 접속사 용법일 것이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1) a. 帝國主義是我們的大敵人。同治光緒年間如此，現在還是如此。
제국주의는 우리의 큰 적이다. 동치·광서 연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b. 你去還是他去?
네가 가니 아니면 개가 가니?

(1a)는 부사의 첫 번째 용법으로 ‘여전히, 아직도’를 뜻하고, (1b)는 접속사의 첫 번째 용법으로서 ‘또는, 아니면’의 뜻을 지닌다. 그런데 ‘還是’는 위의 기능 말고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2) a. 你還是別去了。
너 그냥 가지마.
b. 還是爸爸最愛我!
뭐니뭐니해도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해.
c. 你不記得嗎? 我和我媽媽是昨天早晨到的，還是你親自幫我填的登記卡片呢。
기억 안 나세요? 저랑 엄마는 어제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것도(심지어) 당신이 직접 등록카드를 써 주셨잖아요.
d. 他還是挺善良的。
개 그래도 꽤 착해.
e. 長這麼大，我還是頭一回讓三輪給欺負了。¹⁾
지금껏 크면서 이렇게 괴롭힌 당한 것도 정말 처음이다.
f. A: 你去過徐家匯嗎?

1) 葛錯楨 (2021) 예문 참조

너 쉬자후이 가봤니?

B: 当然去過, 我這衣服還是在東方商厦買的呢。

당연히 가봤지. 지금 이 옷도 동방 쇼핑몰에서 산거야.

(2)는 (1)처럼 ‘還是’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난감해 한다. (2)를 부사 용법인 ‘여전히, 아직도’ 혹은 접속사 용법인 선택 기능으로 해석하면 매우 어색하다. 이중에 ‘~하는 게 낫다’로 해석되는 (2a)와 같은 경우는 (2b-f)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하고 곧잘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해당 용법조차도 ‘還是’의 ‘여전히, 아직도’, ‘또는’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전의 해설만 보아도 ‘還是’는 두 개의 품사로 나뉘는데다가 세부적인 의미도 다양하다. 하지만 각 용법들은 분명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본다. 본고는 ‘還是’의 여러 용법들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還是’의 핵심의미와 의미 제약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還是’에 대한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중에 출판된 교재에서 ‘還是’의 어떤 의미항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還是’ 의미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 화용, 유형학, 문법화 측면에서 의미항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還是’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중국어 교재 해설 현황

본 장절에서는 국내 중국어 교재의 ‘還是’에 대한 해설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중에 출판된 7종의 중국어 교재 시리즈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교재 시리즈

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신공략중국어』1권~7권, 『신개념중국어』1권~4권,
『스마트스피킹중국어』1권~4권, 『집중중국어』1권~4권,
『한어구어』1권~6권, 『중국어의 신』1권~4권, 『중국어마스터』1권~6권

교재별 ‘還是’에 대한 수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공략중국어』
2권 2과 [접속사] 아니면, 또는²⁾ 예) 要紅的還是要藍的?
2권 5과 [부사] ...하는 편이 더 낫다³⁾ 예) 我騎車技術不太高, 還是走那條路吧。

『신개념중국어』
1권 19과 [접속사] 또는, 아니면 예) 您要大碗的還是小碗的?

『스마트스피킹중국어』
2권 7과 [접속사]또는, 아니면 예) 男的還是女的?
3권 2과 [부사]~하는 편이 (더) 좋다.
예) A: 我想請您吃飯。 B: 謝謝您的邀請, 但是有點兒不舒服, 還是不去了。

『집중중국어』
2권 8과 [부사] 그래도, 여전히 예) 你別參加了, 還是多休息幾天吧。
2권 9과 [접속사] 아니면⁴⁾ 예) 咱們坐火車去還是坐飛機去?

-
- 2) “접속사 ‘還是’로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의 대답을 연결함으로써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함.
3) ‘還是...吧’에서 ‘還是’는 부사로서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의미이며,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쪽을 선택할 때 쓰인다고 설명함.
4) 접속사 ‘還是’는 ‘A還是B’의 형식으로 쓰여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라는 선택의문문을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함.

『한어구어』

1권 11과 [접속사]또는, 아니면 예)你們喝什麼? 茶還是咖啡?

『중국어의 신』

1권 9과 [접속사] 또는, 아니면⁵⁾ 예)在這兒吃還是帶走?1권 10과 [부사] ~하는 편이 더 좋다.⁶⁾ 예)逛街太熱了, 咱們還是去看電影吧。

『중국어마스터』

1권 14과 [접속사] 아니면⁷⁾ 예)坐火車去還是坐飛機去?

2권 6과 [부사]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예)還是坐地鐵比較好。

위의 7종 교재 시리즈를 조사한 결과, ‘還是’의 접속사 용법은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었다. 그에 반해, ‘還是’의 부사 용법에 대해서는 7종 중 『신개념중국어』와 『한어구어』 2종은 아예 언급이 없고, 나머지 5종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5종 교재 모두 부사 용법 가운데 ‘~하는 편이 낫다’의 의미로 쓰이는 용법만을 다루고 있다. 해당 용법에 대한 설명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신공략중국어』, 『스마트 스피킹 중국어』, 『중국어의 신』은 ‘~하는 편이 더 좋다’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집중중국어』, 『중국어마스터』는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문은 모두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쪽을 선택할 때 쓰이는 문장들이다.

	부사 ‘~하는 편이 낫다’	접속사 ‘또는, 아니면’
『신공략중국어』	○	○

5)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문문에는 ‘還是’를 사용한다. ‘A還是B’는 ‘A니, 아니면 B니?’, ‘A 할래, 아니면 B 할래?’라는 의미이다. 만약 선택해야 하는 것이 명사라면 ‘是A還是B?’로 나타낼 수 있고 A 앞에 나오는 ‘是’는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함.

6) ‘還是’는 ‘아니면’, ‘또는’의 의미로 선택의문문을 만들 때도 쓰지만, ‘아무래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인다. 주로 ‘還是+ 권장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쓴다고 설명함.

7) 선택의문문이란 ‘A 還是 B?’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의 형식으로 쓰여 A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라고 설명함.

『신개념중국어』	X	○
『스마트스피킹중국어』	○	○
『집중중국어』	○	○
『한어구어』	X	○
『중국어의 신』	○	○
『중국어마스터』	○	○

[표1] 교재별 ‘還是’ 의미의 수록 현황

위의 7종 교재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중에 나온 중국어 교재는 ‘還是’의 여러 용법 가운데 한두 개만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다. 해당 설명만으로는 평소 학생들이 ‘還是’의 다양한 예문을 접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我還是不吃了。”(나 그냥 안 먹을래.)와 같은 문장을 해석할 때 『집중중국어』나 『중국어마스터』의 부사 설명을 적용하면 "나 여전히/그래도 안 먹을래."와 같이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린다.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還是’의 의미와 학생들이 익숙한 연속 의미나 선택 의미 간에 의미적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찾기도 어려워 학생들은 ‘還是’의 용법들 간에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미를 기계적으로 외우게 된다. 이에 본고는 부사의 의미 기능들 사이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부사와 접속사 용법 사이의 연관성 또한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還是’의 의미 기능에 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자.

趙吉·姜太月 (2019) 는 ‘還是’의 다의 현상에 주목하여 ‘還是’의 의미 파생 과정을 추적하고 의미를 재분류하였다. ‘還是’에는 지속의미와 선택의미 이렇게 두 개의 기본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속의미와 선택의미를 또다시 화용적 각도에서 각각 예상 밖(反預期), 예상대로(合預期), 약한 인과관계(弱因果關係)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대응 양상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 논

문은 ‘還是’의 의미를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還是’의 산발적 의미들 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표와는 방향 설정 자체가 다르다.

胡玲(2009)은 역접 복문에 사용된 ‘還是’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의미 기능들 간의 파생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지속 의미와 선택 의미를 부사 ‘還是’ 의미의 중요한 두 축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부사 ‘還是’의 선택 의미는 문법화 과정을 통해 연속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법화 정도에 따라 순수 연속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서부터 허화(虛化)된 연속 의미, 연속과 선택의 의미가 모두 내포된 경우, 나아가 연속 의미가 완전히 소실된 순수 선택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순수한 선택 의미는 연속 의미가 허화의 과정 속에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고 연속 의미가 탈락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우선 연구 대상 자체가 역접 복문에 사용된 ‘還是’에 국한되어 “你還是走吧。”, “還是你最了解我。”와 같은 단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논의되지 않았다. ‘還是’의 의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역접 복문에 사용된 ‘還是’ 이외의 상황까지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은수(2021)는 기존 연구에서 부사 ‘還是’의 서로 다른 의미 기능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모두 연속 의미로 일원화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속의 의미를 '상황의 연속', '기대의 연속', '기준의 연속'의 의미로 세분화하였으며, 彭小川·胡玲(2009)에서 선택 의미⁸⁾로 분류하였던 것도 모두 이 세 가지 연속 의미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還是’는 단순히 연속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만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제약이 가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이은수(2021)는 접속사 ‘還是’가 중국어 선택의문문의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보는 梅祖麟(1978)의 주장에 동의하며 접속사

8) 彭小川·胡玲(2009)은 ‘~하는 편이 더 좋다’로 해석되며 비교나 고려를 통해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 의미’로 부르고 있다.

‘還是’와 부사 ‘還是’가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하여 의미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접속사 용법을 논외로 하고 있다. 梅祖麟(1978)은 ‘還’가 선택의문문에 쓰였던 ‘爲’와 음운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爲’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爲’와 음운이 비슷한 여러 글자 가운데 어떻게 ‘還’가 선택되었을까, ‘還’가 선택문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또한, 부사 용법 가운데 의외성이나 어기 강화 기능으로 간주되는 문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어 ‘還是’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3. ‘還是’ 용법 간의 의미적 상관성

1) ‘還是’의 부정 기능

선행 연구 가운데 부사 ‘還是’의 여러 용법들과 접속사 ‘還是’의 용법을 총망라하여 의미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은수(2021)와 같은 경우는 부사 ‘還是’의 여러 용법들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하나의 공통된 의미로 일관성 있게 규명하였다는 점이 고무적이지만 접속사 ‘還是’와의 연관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 예를 보자.

- (3) 我建議你還是穿那套紫色的吧。
넌 아무래도 그 자주색 옷을 입는 게 좋겠어.

彭小川·胡玲(2009)은 (3)의 ‘還是’에 대해 화자가 고민 끝에 어떤 안을 선택함을 나타낸다고 한 반면, 이은수(2021)는 선택의 의미는 ‘還是’가 출현한 문장의 의미이지 ‘還是’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은수(2021)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還是’와 같은 연속을 나타내는 어휘가 어떻게 선택의 상황에 쓰이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본다.

‘還是’에는 기본적으로 ‘부정, 반대, 역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고는 ‘還是’의 ‘부정’ 기능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 쓰이는 ‘還是’의 용법들을 연결해주는 핵심 연결 고리라고 본다. 李崇興(1990)은 접속사 ‘還是’의 유래를 고찰한 연구로서 ‘還’가 본래 역접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還’는 ‘却(전환 표시)’처럼 역접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해당 기능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還’가 ‘反(거꾸로)’, ‘反而(오히려)’의 의미로서 ‘예상이나 사리를 벗어남’을 나타내다가 중당 시기에 이르러 의미가 더욱 허화되면서 생겨난 기능이다. 梅祖麟(1978)의 연구에 의하면 ‘還是’가 선택의문문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남송 시기부터이고, 朱熹 저작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還’와 ‘是’가 서로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였다가, ‘還’의 역접 의미가 점차 소실되면서 ‘還是’가 한 단어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이것이 선택의문문에 사용되면서 하나의 선택 표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李崇興(1990)은 근대중국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可’와 ‘却’와 같은 어휘도 선택의문문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4) a. 你說可是我的是, 可是他的是?

b. 武松翻過臉來道:“你要死, 却是要活?”(水二十六回) 9)

‘可’와 ‘却’도 처음에는 역접 어기의 부사로 쓰이다가 선택의문문에 쓰이기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 ‘還’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還’의 선택의문문 용법은 역접 어기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연속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이 모두 선택의 상황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의 ‘仍然’, ‘依舊’, 한국어의 ‘아직도’, ‘여전히’, 영어의 ‘still’ 등도 부사 ‘還是’와 유사하게 연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還是’처럼 접속사 용법

9) 李崇興(1990) 예문 참조

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還是’가 선택의 상황에 쓰일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還是’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이라는 의미 요소이지 연속의 의미와는 큰 상관이 없다.

2) ‘還是’의 의미별 부정 양상

‘還是’의 다의성을 논의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앞서 밝혔듯이 접속사 용법과 부사 용법을 총망라하여 전면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還是’의 접속사 용법과 부사 용법을 함께 포함시켜 의미 기능을 논의한 연구 가운데 ‘還是’의 의미항을 가장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는 연구로 吳穎 (2010) 이 있다. 본고는 ‘還是’의 여러 의미항들의 공통적 특징을 찾고 일관된 설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된 해당 논문의 의미항 분류를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吳穎 (2010) 은 ‘還是’에 연속의미 (延續義) 의 기본기능, 선택의미 (選擇義) 의 접속기능, 선정의미 (擇定義) , 첨가의미 (添加義) , 의외성 (反預期) 을 지닌 양태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사실 이 다섯 가지 용법은 모두 ‘還是’가 함의하고 있는 ‘부정’의 의미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연속 의미의 ‘還是’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은 ‘還是’가 연속 의미로 나타나는 예문이다.

- (5) a. 昨天的比賽我就是稀里糊塗地贏了曹薰鉉老師,今天還是這樣。
어제 시합에서 나는 엉겁결에 조훈현 선생님을 이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 b. 多年不見, 他還是那麼年輕。¹⁰⁾
몇 년을 못 봤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게 젊었다.

10) 吳穎 (2010) 예문 인용

‘연속’이라 함은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전의 상태나 상황과 동일하게 죽 이어짐을 나타낸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태나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혹은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조금은 바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還是’의 ‘연속’ 의미는 ‘還是’의 부정 기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현상 유지하게 되는, 즉 ‘연속’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還是’가 연속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출현하는 문장에 조건이 따른다. ‘還是’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제된 문장에 사용될 경우 ‘還是’의 부정 기능에 의해 ‘연속’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5a)는 ‘어제’에서 ‘오늘’로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여 시험의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화자가 어제 시험에서 이긴 것이 얼떨떨한 상황이라고 말할 만큼 결코 쉽게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시험에서 질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긴 것이다. 즉, ‘시험에서 지게 되는 상황’을 부정하고 기존의 상황이 유지된 것이다. (5b)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 지났으면 늙어야 하는 게 자연의 순리이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거나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거꾸로 먹었나봐”, “세월이 빗겨간 동안”이라고 칭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b)에는 별도의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이 역접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만,...’이라는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문장의 역접 관계도 바로 ‘還是’의 부정 기능으로부터 실현된 것이다.

연속의 의미의 ‘還是’가 쓰인 문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그전의 상태나 상황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전의 상태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다. (5a)는 전자에 해당하고, (5b)는 후자에 해당한

다. (5a)는 어제와 오늘의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인데, 선행절에 어제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고 후행절에 오늘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5b)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도 젊었고 지금도 젊다는 뜻으로서 몇 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동일하게 지속되었다는 것인데 해당 문장에 몇 년 전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없다. 하지만 ‘還是’를 통해 역으로 이전에도 젊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택의문문에 사용된 접속사 ‘還是’의 선택 기능을 보도록 하겠다.

- (6) a. 你喜歡爸爸還是媽媽?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b. 在這兒吃還是帶走?
여기서 드세요 아니면 테이크아웃하세요?
c. 你是韓國人還是中國人?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6)은 모두 ‘A還是B’ 구조로서 표면적으로는 ‘A 또는 B’와 같이 단순히 A와 B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병렬시켜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구조의 기저에는 ‘A가 아니라면 B이다’라는 의미 관계가 함축되어 있다. 즉, 앞에 제시된 선택지 A가 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또 다른 선택지 B를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중국어의 접속사 ‘還是’의 선택 기능은 화용적 추론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6a)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니? 아빠가 아니면 엄마니?’, (6b)는 ‘여기서 먹니? 그게 아니라면 테이크아웃하니?’, (6c)는 ‘네가 한국인이니? 그게 아니라면 중국인이니?’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아니’라는 역접 혹은 부정의 의미를 바로 접속사 ‘還是’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택의문문에 사용된 ‘還是’는 접속사로서 한국어로는 부정어인 ‘아니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부터 ‘還是’에는 ‘부정, 역접’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어의 대응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아니면’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7) a. 너 뭐 먹을래? 사과 아니면 배?
 b. 뛰어갈래 아니면 걸어갈래?
 c. 예뻐 아니면 귀여워?

한국어의 ‘아니면’은 (7a)처럼 단순히 명사를 병렬시켜 선택지로 제시할 수 있는가하면 (7b)와 (7c)처럼 술어구를 병렬시켜 선택의문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還是’의 선정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앞서 교재나 공구서의 해설에서 부사 ‘還是’에 ‘~하는 게 더 낫다’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러 방안 중에 고민 끝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에 쓰인다. 부사 ‘還是’가 선택의 상황에 쓰이는 예문을 보자.

- (8) a. 下象棋不帶勁, 還是打球吧。
 장기를 두는 것은 재미가 없다, 그냥 공놀이 하자.
 b. 我還是不吃了。
 나 그냥 안 먹을래.

‘還是’의 선정 의미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고민하여 하나를 고르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다른 선택지를 부정하고 선택한 것이다. (8a)의 경우 장기를 두는 것을 부정하고 공놀이를 선택한 것이고, (8b)의 경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먹는 것’을 부정하고 ‘안 먹는 것’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還是’의 선정 의미가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還是’의 부정 기능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선정 의미의 ‘還是’가 쓰인 문장 역시도 크게 선행절에 다른 선택지가 제시된 경우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이다. (8a)는 배제되는 선택지가 선행절에 제시된 경우이고, (8b)는 배제되는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은 문장이다. 선택의 과정에서 탈락한 선택지가 문장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8b)와 같이 탈락한 선택지를 상식적인 선에서 혹은 맥락을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彭小川·胡玲 (2019) , 이은수(2021) 등은 ‘還是’의 선정 의미를 기본적으로 연속의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예를 보자.

- (9) 丈夫: 我這麼坐着, 人家會不會覺得我不禮貌呢? 是不是得站起來?
妻子: a. 你腿不舒服, 還是坐着吧。
b. 有可能, 還是起來吧。

위의 대화는 남편이 다리를 다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집에 손님맞이를 앞두고 부부가 나누는 대화이다. 남편의 질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9a)와 같이 앉아 있는 그 상태를 죽 유지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9b)와 같이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때 ‘還是’는 모두 순수히 고민 끝에 선택한 방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還是’가 기본적으로 연속의 의미를 지닌다면 (9b)는 어색한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李姝姝 (2019) 는 ‘還是’의 연속의 의미와 선정의 의미가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하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부사 ‘還是’의 선정 의미는 접속사 ‘還是’의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還是’의 선정 의미는 제안, 권유, 청유 등 요청 화행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여러 방안 중에 이상적인 방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만큼 요청 화행과 ‘선택’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인다.

- (10) a. 내일 아니면 모래 시험 성적이 나온다.
b. 아니면 저녁 먹고 가.

- (11) a. tea or coffee?
b. Go at once, or you'll miss the train.

한국어 ‘아니면’은 (10a)와 같이 접속사 ‘還是’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면 또 (10b)와 같이 제안의 상황에도 쓰이고 있다. 영어 ‘or’ 역시 (11a)와 같이 선택지를 결합시키는 접속 기능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11b)와 같이 요청 화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어휘가 선택의 상황과 요청 화행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유형학적으로도 유의미한 현상이다. ‘還是’가 요청문에 사용됨으로써 문장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고 공손한 어감이 가미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2) a. 你還是別去了。
 너 그냥 가지마라. (너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겠어.)
 b. 咱們還是吃漢堡包吧。
 우리 그냥 햄버거 먹자.

(12)는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청유를 하는 요청화행으로서 ‘還是’가 사용되었다. 이때 ‘還是’를 생략하면 어감이 다소 딱딱해지며 덜 공손한 느낌이 든다. ‘還是’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고심 끝에 하나를 선택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하고 성의 있게 청자에게 요청하였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어기 완화와 더불어 공손성이 부가된다고 본다.

네 번째로 ‘還是’의 첨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첨가 의미인 ‘還是’가 쓰이면 원래의 상태 A에 B를 추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오직 A만 존재하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A만으로 끝이 ‘아님’을 나타낸다. 다음 예를 보자.

- (13) a. 你不記得嗎? 我和我媽媽是昨天早晨到的, 還是你親自幫我填的登記卡片呢。
 기억 안 나세요? 저랑 엄마는 어제 아침에 도착했고요, 그것도 (심지어) 당신이 직접 등록카드를 써 주셨잖아요.
 b. A: 你去過徐家匯嗎?
 너 쉬자후이 가봤니?
 B: 當然去過, 我這衣服還是在東方商厦買的呢。
 당연히 가봤지. 지금 이 옷도 동방 쇼핑몰에서 산 것이야.

(13a)는 화자인 ‘내’가 호텔직원에게 이중 체크인을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 발화된 문장이다. 해당 호텔 직원이 등록카드를 직접 써주지 않고 옆에 동료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고객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주어야 할 텐데 본인이 직접 등록카드를 써주며 응대를 했음에도 기억도 못하고 문제 해결을 안 해주니 더 맞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還是’는 고객을 기억하고 해결해줘야 하는 한층 더 강화된 이유가 추가되었음을 나타내준다. 이 문장에서 ‘還是’는 한국어로 ‘더구나’, ‘하물며’, ‘심지어’ 등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13b)의 B는 쇼핑몰에 가보았을 뿐만 아니라 옷까지 사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還是’는 ‘단순히 쇼핑몰에 가보기만 한 것’을 부정하고 쇼핑몰에서 구매 행위까지 하고 왔음을 나타낸다. 吳穎 (2010) 에 따르면 첨가의 의미의 ‘還是’는 ‘不但(不僅) ...而且...’(A 뿐 아니라 B이다)와도 함께 어울려 자주 쓰인다. 그 이유는 부정사 ‘不’가 ‘오직, 다만’의 의미인 ‘但’을 부정하는 ‘不但’의 의미구조가, 첨가 의미인 ‘還是’에 부정 기능이 작용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13)는 ‘不但(不僅) ...而且...’와 같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첨가의 관계를 못 나타낼 것 같지만, ‘還是’가 ‘不但(不僅) ...而且...’와 유사한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첨가의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還是’의 의외성을 지닌 양태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자.

- (14) a. 他還是挺善良的。
 개 그래도 꽤 착해.
 b. 長這麼大, 我還是頭一回讓三輪給欺負了。¹¹⁾
 이제껏 크면서 이렇게 리어카 끄는 놈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도 정말 처음이다.
 c. 還是爸爸最愛我。
 뭐니 뭐니 해도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해.

위의 예문과 같이 ‘還是’가 예상 밖을 나타내는 양태 기능으로 쓰였을 때

11) 葛錯楨 (2021) 예문 인용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가장 어렵다. (14)의 ‘還是’의 경우 다른 의미 기능에 비해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어 담화표지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담화표지는 명제의 전달보다는 화자의 태도나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법화 과정 속에서 ‘還是’에 화자의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용법이 쓰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14)은 ‘還是’의 주요 의미 기능으로 간주되는 연속 의미 혹은 선정 의미와 전혀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還是’의 양태 기능 또한 ‘부정’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14a)는 ‘그’에게 이것저것 단점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배경이 암묵적으로 주어진 상황이다. 여기서 ‘還是’는 이런 부정적 상황을 부정하고 ‘선량함’이라는 그만의 장점을 찾아낸 것으로서, 이는 반전이고 예상 밖의 일이라 할 수 있다. (14b)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여러 다양한 일을 겪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여기서 ‘還是’는 이런 전제를 부정하고 ‘의외로 처음 겪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14c)의 경우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아빠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배경적 사실이나 전제가 부정되면서 의외성이 드러난 것이다.

‘還是’의 의외성 양태 기능은 어기 강화 혹은 강조의 기능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還是’에 부정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14)에서와 같이 ‘還是’가 쓰인 절이나 문장은 배경적 사실과 서로 반대되는 역접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역접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내용¹²⁾보다는 후행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결국 문장에서 후행절에 사용되는 ‘還是’에 어기 강화 기능도 함께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還是’의 바로 뒤에 나오는 성분이 강조된다. (14a-c)에서 차례로 ‘挺善良’, ‘頭一回’, ‘爸爸’가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다.

12) (13)과 같이 부정되는 배경적 사실이나 전제는 문장에서 선행절이나 담화 맥락 속에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다.

4. 결론

『現代漢語詞典』에 따르면 ‘還是’는 크게 부사와 접속사로 분류되며, 각 품사 내에서도 연속 의미, 선택 의미, 첨가 의미, 의외성 등 다양한 의미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還是’가 평소 담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인데, 실제 중국어 교재를 조사해보면 ‘還是’에 대해 부사의 ‘...하는 것이 낫다’ 의미와 접속사의 ‘또는’ 의미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還是’의 의미와 교재 내용에 포함된 의미 간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부사 용법(‘~하는 것이 낫다’)과 접속사 용법(‘또는, 아니면’)의 연관성조차도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은 ‘還是’의 용법들 간에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의미를 기계적으로 외우곤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부사 ‘還是’의 의미 기능들 사이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부사 ‘還是’와 접속사 ‘還是’의 용법 사이의 연관성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문법화 각도에서 ‘還是’의 용법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살펴보았고, 또 한국어나 영어 등에서 비슷한 의미 파생 과정은 없는지 유형학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중국어 ‘還是’의 여러 부사 용법과 접속사 용법의 기저에는 ‘부정’, ‘역접’이라는 의미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흔히 알고 있는 ‘還是’의 연속 의미, 선택 의미 등도 모두 기본적으로 부정이나 역접 관계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參考文獻

<공구서>

- 김태순·안영희, 『집중중국어』1권, 서울:동양북스, 2017.
 김태순·안영희, 『집중중국어』2권, 서울:동양북스, 2017.
 김태순, 『집중중국어』3권, 서울:동양북스, 2017.
 김태순, 『집중중국어』4권, 서울:동양북스, 2018.
 박정구·백은희, 『중국어마스터』1권, 서울:다락원, 2008.
 박정구·백은희, 『중국어마스터』2권, 서울:다락원, 2008.
 박정구·백은희·마문나, 『중국어마스터』3권, 서울:다락원, 2009.
 박정구·백은희·마문나, 『중국어마스터』4권, 서울:다락원, 2010.
 박정구·백은희·마문나, 『중국어마스터』5권, 서울:다락원, 2011.
 박정구·백은희·마문나, 『중국어마스터』6권, 서울:다락원, 2012.
 이강재·이미경·초팽염, 『중국어의 신』1권, 서울:동양북스, 2019.
 이강재, 『중국어의 신』2권, 서울:동양북스, 2019.
 이미경·초팽염, 『중국어의 신』3권, 서울:동양북스, 2020.
 이미경·초팽염, 『중국어의 신』4권, 서울:동양북스, 2019.
 임대근(편역), 『신개념 중국어』1권, 서울:다락원, 2016.
 임대근(편역), 『신개념 중국어』2권, 서울:다락원, 2016.
 임대근·이수영(편역), 『신개념 중국어』3권, 서울:다락원, 2017.
 임대근·이수영(편역), 『신개념 중국어』4권, 서울:다락원, 2017.
 戴桂英·劉立新·李淘燕 (저), 『신한어구어』1권, 서울:동양북스, 2017.
 戴桂英·劉立新·李淘燕 (저), 『신한어구어』2권, 서울:동양북스, 2017.
 戴桂英·劉立新·李淘燕 (저), 『신한어구어』3권, 서울:동양북스, 2017.
 戴桂英·劉立新·李淘燕 (저), 『신한어구어』4권, 서울:동양북스, 2017.
 劉德聯·劉曉雨 (저), 『신한어구어』5권, 서울:동양북스, 2017.
 劉德聯·劉曉雨 (저), 『신한어구어』6권, 서울:동양북스, 2017.
 馬箭飛·蘇英霞·翟艷(저), 변형우·주성일·여승환·배은한(역), 『신공략 중국어』1권,

- 서울:다락원, 2019.
- 馬箭飛·蘇英霞·翟挾(지), 변형우·주성일·여승환·배은한(역), 『신공략 중국어』2권, 서울:다락원, 2019.
- 馬箭飛·蘇英霞·翟挾(지), 변형우·주성일·여승환·배은한(역), 『신공략 중국어』3권, 서울:다락원, 2019.
- 馬箭飛·李德鈞·成文(지), 변형우·주성일·여승환(역), 『신공략 중국어』4권, 서울:다락원, 2019.
- 馬箭飛·李德鈞·成文(지), 변형우·주성일·여승환(역), 『신공략 중국어』5권, 서울:다락원, 2019.
- 馬箭飛·蘇英霞·翟挾(지), 박균우(역), 『신공략 중국어』6권, 서울:다락원, 2019.
- 馬箭飛·陳若君·毛悅(지), 조동매(역), 『신공략 중국어』7권, 서울:다락원, 2020.
- 張洁(지), 김현철·박응석(역), 『스마트 스피킹 중국어』1권, 서울:동양북스, 2018.
- 張洁(지), 김현철·박응석(역), 『스마트 스피킹 중국어』2권, 서울:동양북스, 2019.
- 張洁(지), 박응석(역), 『스마트 스피킹 중국어』3권, 서울:동양북스, 2019.
- 張洁(지), 박응석(역), 『스마트 스피킹 중국어』4권, 서울:동양북스, 2020.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七版), 北京:商務印書館, 2016.

<논문>

- 이은수, 「부사 ‘還是’의 의미 분석」, 『중국어문논총』 제104집, 2021.
- 趙吉·姜太月, 「“還是”的語義再分類」, 『중국어문학논집』 제115권, 2019.
- 葛錯楨, 「“還是”作為意外范畴標記研究」, 『新疆大學學報』第49卷, 2021.
- 李崇興, 「選擇問記號“還是”的來歷」, 『語言研究』第2期, 1990.
- 李姝姝, 「情态義的來源及浮現條件」, 『漢語學習』第5期, 2019.
- 梅祖麟, 「現代漢語選擇問句法的來源」,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49卷, 1978.
- 彭小川·胡玲, 「轉折句中的“還是”」, 『漢語學習』第6期, 2009.
- 吳穎, 「“還是”的多義性與習得難度」, 『華文教學與研究』第40期, 2010.

Abstract

Semantic correlation between the usages of '*Haishi*'

Lim, So Jeong

Although modern Chinese '*Haishi*' is a common language, Chinese learners do not understand how to use the word because it has various meanings and functions. When a word is differentiated into multiple semantic terms, it is not easy for learners to memorize and accurately use detailed semantic terms.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how the usages of '*Haishi*'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how they originated from the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s, and to investigate their correlation through similar vocabulary in Korean or English.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emantic mechanism of 'negative' or 'reverse' is operating at the basis of the adverb and conjunction usages of '*Haishi*'. The continuation and selection meanings of '*Haishi*', which are commonly known, are basically created by negation or inverse relationship.

Key words : Polysemy, Pragmatics, Request sentence, Grammaticalization, Semantic function, Chinese education

투 고 일 : 2022. 1. 10. / 심 사 일 : 2022. 1. 15. ~ 2022. 2. 15. / 게재확정일 : 2022. 2. 20.